

자조금제도, 생산·출하조절 사업 시범 추진 방침

자율생산조절 참여자 도축·경매우선권부여
도매시장 출하돈 두당 20원 자조금시범거출



양경위 중앙위원회 개최

본회(회장: 전동용)는 지난 4월 10일 팔레스 호텔 카네이션 볼룸에서 양경위 중앙위원회를 열고 돼지의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적 생산조절 강화 방안에 관해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본회 전동용 회장, 김광희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이인형 중소기업과장 및 학계·업계·관련 단체 인사로 구성된 양경위 중앙위원 등 모

두 21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양경위원들은 한백용 본회 전무이사로부터 최근의 양돈 현황 및 향후 양돈경기 전반에 관해 설명을 듣고 양돈경영 안정화 방안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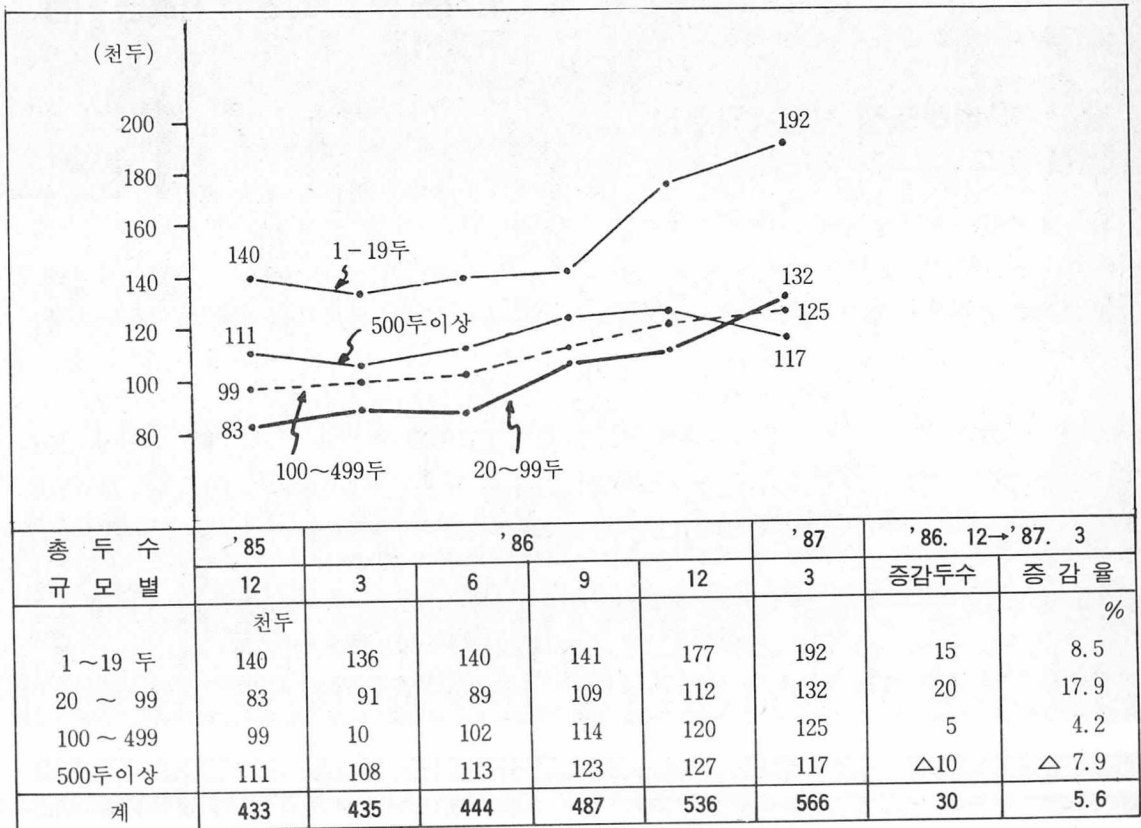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양경위원들은 양돈경영 안정을 위해 ▷ 돼지의 일정 사육두수 유지 ▷ 생산 및 출하조절 시범사업 추진 ▷ 시범적 자조금 거출 사업 추진 ▷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한백용 전무이사는 양돈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근 전국의 돼지 사육두수는 3백51만 6천두로 정부 당국의 강력한 행정적 조치와 지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가격 상승에 자극받아 계속 증가, 마침내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는 생산비 수준 이하의 돼지 파동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전무이사는 또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산법에 의한 등록·허가업체는 당국의 강력한 제재로 모돈을 감축하고 있는 반면, 등록규모 이하인 5백두 미만 규모의 농가에서 사육두수를 대폭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양경위는 정부 주도의 돼지 사육조절에만 기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관련단체와 업계가 주축이 되어 민간주도의 자율적 생산조절 활동을 강화해

표 1. 규모별 사육두수 증감 추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두수 3백30만~3백50만두, 모돈수 46만~49만두선 유지키로

양경위는 금년도의 국내 돈육 수요량을 36만 2천8백톤(육돈 6백30만~6백70만두 소요 <85-90kg출하>)으로 보고 이를 생산하는데는 46만-49만두의 모돈과 3백30만-3백50만두의 총 사육두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87년 3월말 현재 이미 모돈은 56만 6천두로 적정선보다 7만 6천-10만 6천두나 초과 사육되고 있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의 불황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경위는 이와같은 사실을 양돈농가

양경위는 양돈경영안정을 위해 민간주도의 자율적 생산조절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도축·지육의 경매우선권을 부여하고, 출하돈 두당 20원씩 자조금을 거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기로 결정했다.

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기로 했다.

양경위는 이를 위해 T.V, 라디오,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 대중 매체를 통해 강력한 홍보활동을 펴 나가는 한편, ▷ 월간양돈(9만6천부) ▷ 양돈정보(연 20만부 발행) ▷ 양돈특보(연 5만부 발행) ▷ 축산관측자료 등을 통해 대 양돈농가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이와 함께 양돈 주산지별로 4~5월중에 돼지 수급과 가격전망에 관한 강습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해 양돈농민을 교육키로 했다.

생산 및 출하조절 시범사업추진 방침

또한 양경위는 민간 주도의 자율적 생산조절 사업에 참여하는 양돈농가에 대해 도축 및 지육 경매 우선권을 부여하는 생산·출하조절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안은 양돈불황시에 도축장에 생돈 장기계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민간 주도의 자율적 생산조절 사업에 참여하는 일반 양돈농가에 대해 축산물 도매시장에 계획 출하를 유도하는 도축 및 지육의 경매 우선권을 주자는 것이다.

양경위는 도축 및 경매 우선권을 부여하는 농가는 ▷ 자율적 생산조절에 적극 참여하는 업체 ▷ 사육두수 및 출하 계획서(월별)를 보고 하는 업체 ▷ 위 두 가지 사실을 양경위 지역위원회에 보고·확인을 받은 업체로 설정했다. 또 도축 및 경매 우선권 부여 대상 도매시장은 1단

계로 서울 3개 도매시장으로 하고 점차 전국 지방 도매시장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같은 방안은 불황기에 도축장에 장기계류함으로써 입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점차 확대, 계획 생산·계획 출하를 통해 양돈경영의 안정화를 기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출하돈 두당 20원씩 자조금 시범 거출키로

이밖에도 양경위는 돈육의 소비확대를 통한 양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매시장 출하돈에 대해 두당 20원씩의 자조금을 시범적으로 거출키로 했다.

양경위는 지난 '83년부터 본회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돈육소비촉진 분담금(두당 50~100원 거출) 거출이 돈육소비 확대와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비회원 등 많은 양돈농가가 참여치 않고(현재 60만 - 1백만두분만 자진 납부되고 있음)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 자진참여농가들 까지도 의욕을 잃어버리는 불공평한 점이 있어 협회에서는 몇 년전부터 자조금제도의 입법을 추진해 왔다. 허나 자조금제도 입법에는 여러 과정이 필요하므로 우선 시범적으로 도축장에서 자조금을 거출, 이를 산업발전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경위는 특정 도매시장을 지정하여

자조금제도를 시범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자조금 거출 금액은 희망자에 한해 최소금액(두당 20원)부터 시작하고 도매시장측에서 정산시 공제키로 했다.

양경위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 제 1 단계로 양돈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자조금제도의 필요성과 성과를 교육해 나가며, ▷ 제 2 단계로 도매시장 출하자에게 자조금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 제 3 단계로 도매시장에서 정산시 자동 공제하되, 이의가 있는 출하자에게는 그 자리에서 즉시 반환해 주기로 했다.

여기서 거출되는 자조금은 ▷ 돈육의 국내외 소비촉진 홍보 사업 ▷ 조사·연구 및 생산자, 소비자 교육 ▷ 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자조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양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한편 양경위는 수출입 자유화와 시장 개방에 대비해 ▷ 돈육의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 ▷ 생산 원자재 공급 정책 개선 ▷ 유통 근대화화 및 검역제도 개선 ▷ 축산물 수출업자를 지원·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경위는 인근 일본이 연간 20만 7천 톤의 돈육을 수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750톤밖에 수출치 못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대일 돈육 수출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표 2. 일본의 돈육수입 현황('86)

(단위: 톤, 천불)

국 명	수 량	금액(\$)	비 고
대 만	82,880.3	435,594	
덴마크	78,110	410,822	
캐나다	22,436	119,329	
한 국	750	3,984	
기 타	22,542	122,934	
계	207,718	1,092,663	₩ 9,600억원

이를 위해 양경위는 돼지를 적육형(Lean Meat type)으로 개량해 나가고 출하 규격의 국제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세제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경위는 돈육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지원과 국내 검역제도의 국제화, 사료에 매기는 관세와 부가세 면제 등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양경위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 ▷ 전동용(본회 회장) ▷ 김광희(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 최상백(본회 부회장) ▷ 이인형(농림수산부 중소가축과장)
- ▷ 정화진(본회 부회장) ▷ 허신행(농경연 연구위원)
- ▷ 한백용(본회 전무이사) ▷ 김세현(한국사료협회 부장)
- ▷ 이명복(경기도협의회회장) ▷ 심제양(서울·경기양돈조합장)
- ▷ 김철수(충북도협의회회장) ▷ 김장좌(대구·경북양돈조합장)
- ▷ 광용승(충남도협의회회장) ▷ 김순갑(축협공판장장)
- ▷ 기정도(전남도협의회회장) ▷ 장정의(우성농역이사)
- ▷ 조옥봉(경북도협의회회장) ▷ 이원우(인천대신산업)
- ▷ 오정남(제주도협의회회장)